

51장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복음 (51:1-16)

1. 위로의 복음 (51:1-8)

이 부분에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야기를 더 발전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옛적에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에 그에게 복을 주어서 창성케 하신 것처럼, 이제도 시온의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그 광야를 여호와와 동산과 같게 하실 것이다(51:1-3).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 곧 그분의 구원을 보내시면(4-5절) 만민이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와 팔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영원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더 큰 구원의 예표가 됨을 알 수 있다(51:4-8).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세 번이나 동의어로 나온다는 사실이다(51:5, 6, 8).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의를 아는 자들”이라 부르시고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하신다(51:7). ‘의’라는 이 말에 ‘만민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 ‘마음에 율법을 두고서 살아가는 것’ 등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말한다. 성경에서 ‘의’란 언약적 관계에서의 여러 면을 포괄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이 본문에 잘 담겨 있다.

2. 애가의 간구와 위로의 주님 (51:9-16)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여호와와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하면서, 옛적에 그 능력의 팔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찢으신 것처럼 자기들을 구원하시기를 구하였다. 바다를 말리시고 그 깊은 곳에 길을 내시면 기쁨으로 시온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51:9-11).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51:12) 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면서 ‘나는 곧 나’이신 그분께 시선을 두도록 명하신다. 압제자들은 “풀같이 될 인자”에 지나지 않지만,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위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51:12-16).

3. 진노의 잔을 거두심 (51:17-23)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마신 이스라엘에게 “꺾지어다, 꺾지어다” 하고 말씀하신다. 앞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깨소서, 깨소서” 하였는데(51:9), 여호와께서는 두 군데서나 그들에게 “꺾지어다, 꺾지어다” 하고 말씀하신다(51:17; 52: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망하였으나 그들을 위로할 자가 없었던 일을 상기시키시고, 이제 그들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고 하신다(51:17-23).

51장 익힘 문제

1.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실 때 황폐하였던 그곳은 어디와 같이 될 것입니까? (3절)
2. 여호와께서 무엇을 보내시면 그것이 만민의 빛이 될 것입니까? (4절)
3. 여호와와 공의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는 무엇입니까? (5, 6, 8절)
4.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를 아는 자들”이라 부르셨는데 또한 어떤 자들이라고도 부르셨습니까? (7절)
5.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징계를 받은 것을 여호와와 무엇을 마셨다고 표현합니까? (17, 22절)